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34-01

포용
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

‘촘촘하게 따뜻하게’
공공서비스,
생활을 안아준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3399 | www.mois.go.kr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

‘촘촘하게 따뜻하게’
공공서비스,
생활을 안아주다

발 간 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낯설고 어려운 어르신들, 관공서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서는 마음먹고 길을 나서야 하는 벽지 마을 주민들,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 낯선 타국에서 육아·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는 아직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목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공공서비스가 있어도 필요한 국민이 이용하기 쉽지 않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포용국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를 담은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복지·보건·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의 생생한 사례와 혜택을 받은 분들의 소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공공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겹

CONTENTS

복지생활 이야기

은세상에 [행복할 권리]를 채워요

| | |
|--|-----|
| 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복지지원 서비스 - 경기도 양평군 | 012 |
| 02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 경기도 파주시 | 014 |
| 03 빛나는 너의 꿈, 꿈 지원 프로젝트 운영 - 부산광역시 중구 | 016 |
| 04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통역폴 - 대구광역시 북구 | 018 |
| 05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안산시 | 020 |
| 06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 022 |
| 07 작은 다문화학교 - 경상남도 거제시 | 024 |
| 08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 경기도 구리시 | 026 |
| 09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 필기 취득반 운영 - 경상북도 봉화군 | 028 |
| 1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지원사업 - 경상북도 안동시 | 030 |
| 11 구민과 함께하는 다같이 봉사단 - 대전광역시 동구 | 032 |
| 12 장애인 바리스타 취업지원 '놀품 커피교육' - 강원도 강릉시 | 034 |
| 13 장애인복지관 YES BUS 운영 - 경기도 양평군 | 036 |
| 14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 - 강원도 횡성군 | 038 |
| 1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 040 |
| 16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전라남도 | 042 |
| 17 지역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 모델 운영 - 경기도 양주시 | 044 |
| 18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 전라남도 영광군 | 046 |
| 19 한부모가족 폭력피해아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 전라북도 | 048 |
| 20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 제주특별자치도 | 050 |
| 21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무료배달서비스 - 전라북도 순창군 | 052 |
| 22 도심 흉물이 희망의 집으로, 행복동지사업 - 대구광역시 동구 | 054 |
| 23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 전라북도 전주시 | 056 |
| 24 청년 셰어하우스 & 청년거점공간 - 전라북도 완주군 | 058 |
| 25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 광주광역시 | 060 |
| 26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잡어스(JOB-US)' - 전라남도 | 062 |
| 27 더 드림(The Dream) 희망엽서 - 광주광역시 동구 | 064 |
| 28 내 이웃 찾아줌(zoom) 우체통 운영 - 경상남도 남해군 | 066 |



| | |
|--|-----|
| 29 독거노인을 위한 꿈잠이불빨래방 - 부산광역시 수영구 | 068 |
| 30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활용 '부모안심 톡'서비스 - 전라북도 고창군 | 070 |
| 31 사회적 약자 스마트 안심지킴이 서비스 - 전라남도 순천시 | 072 |
| 32 결식아동을 위한 '엄마의 밥상' - 전라북도 전주시 | 074 |
| 33 마을식당 엄마밥 - 서울특별시 금천구 | 076 |
| 34 노숙인 사진 교육 희망프레임 - 서울특별시 | 078 |
| 35 노숙인 응급처치 교육 - 서울특별시 | 080 |
| 36 드림스타트 어머니 멘토단 운영 - 강원도 강릉시 | 082 |
| 37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 강원도 원주시 | 084 |
| 38 참한별 이동복지관 운영 - 경상북도 성주군 | 086 |
| 39 '찾아가는 복지 사랑방' - 충청남도 서산시 | 088 |

보건생활 이야기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을 채워요

| | |
|--|-----|
| 01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 충청북도 | 092 |
| 02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 - 경상북도 영양군 | 094 |
| 03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 전라남도 고흥군 | 096 |
| 04 순회 이동진료실 운영 - 전라남도 함평군 | 098 |
| 05 한방실 없는 섬 중에 섬 '침·뜸'치료 사업 - 전라남도 신안군 | 100 |
| 06 '감염병 Free' 찾아가는 무료방역서비스 - 경상북도 구미시 | 102 |
| 07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 104 |
| 08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서비스 - 강원도 강릉시 | 106 |
| 09 북한이탈 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동 건강관리 운영 - 전라남도 여수시 | 108 |
| 10 청년 건강검진사업 - 전라북도 전주시 | 110 |
| 11 다문화가정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 충청남도 보령시 | 112 |





문화생활 이야기

누구에게나 [가슴에 감성]을 채워요

| | | |
|----|--|-----|
| 01 | 숲속목공교실 '피노' - 경기도 가평군 | 116 |
| 02 |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운영 - 경상북도 포항시 | 118 |
| 03 |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20 |
| 04 | 글로벌 '벗' Day (외국인 노동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전라남도 광양시 | 122 |
| 05 | 숨은 재주꾼 '어름사니' 찾아가는 재능나눔 프로젝트 - 경상북도 칠곡군 | 124 |
| 06 |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 전라북도 | 126 |
| 07 | 글로벌 마을학당(한국어 학당) - 전라북도 김제시 | 128 |
| 08 | 어르신들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 경상북도 안동시 | 130 |
| 09 |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 충청북도 청주시 | 132 |
| 10 | 작은 영화관 '금산시네마' - 충청남도 금산군 | 134 |
| 11 |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 - 충청북도 옥천군 | 136 |
| 12 | 도서 택배 서비스 - 강원도 원주시 | 138 |
| 13 |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차량 운영 - 전라북도 무주군 | 140 |



교통생활 이야기

마음까지 실어 나르는 [교통문화]를 채워요

| | | |
|----|--|-----|
| 01 | 100원 택시 운영 - 전라남도 광양시 | 144 |
| 02 |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귀가 서비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146 |
| 03 | 꿈의 버스 운영 - 경기도 고양시 | 148 |
| 04 | 행복콜버스 서비스 - 전라북도 | 150 |
| 05 | 특별교통수단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 경상남도 | 152 |
| 06 | 어르신 승하차를 돕는 버스안내양 - 세종특별자치시 | 154 |

정보화생활 이야기

어디나 [격차없는 정보생활]을 채워요

| | | |
|----|------------------------------------|-----|
| 01 | 맞춤형 이동 정보화 교육 - 충청남도 서산시 | 158 |
| 02 | 1:1 맞춤형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 강원도 정선군 | 160 |
| 03 | IoT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 전라남도 순천시 | 162 |
| 04 | TVWS 기술을 활용한 지역 정보격차 해소 - 충청북도 제천시 | 164 |
| 05 | 온라인 방과 후 학교 '라이브챗' - 경상남도 통영시 | 166 |



법률생활 이야기

방방곡곡 [쉽고 친근한 법]을 채워요

| | | |
|----|-------------------------------|-----|
| 01 | 요일별 맞춤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충청북도 음성군 | 170 |
| 02 | 우리 동네 변호사 운영 - 광주광역시 서구 | 172 |
| 03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74 |



복지생활 이야기

온 세상에 [행복할 권리]를 채워요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생활 구석구석에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죠.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구직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요즘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그 한 축을 든든히 맡고 있네요.
민들레 흩날려 퍼져 나가는 배려와 포용의 복지서비스.

“ 촘촘히 복지를 채웁니다
행복할 권리를 누리세요 ”



01

경기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복지지원 서비스

학교 밖에서도
공부의 열정이
멈추지 않도록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에게 공부 기회를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는데 경제적인 여건상 학업이 어려운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원은 물론 자립지원까지 도와주는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립하고 싶은 청소년에게 생필품 지원까지

검정고시 교재, 인터넷 강의,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학습멘토를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1:1로 연결하여 학습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 있을 경우 맞춤형 학습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돕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일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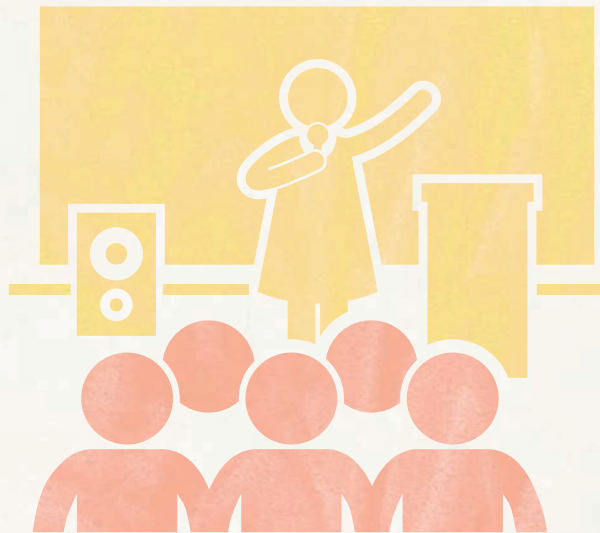
학원비 도움을 받은 000군은 “부모님께 학원비를 받기 어려워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원비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청소년을 상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가 되어 나같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또다른 000군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가 고민이었는데 생필품 지원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02

경기도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꿈드림이 검정고시 합격의 꿈을 두드린다



와~ 검정고시 합격률이 92%라구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는 지난 4월 검정고시 특별반 ‘반디반’을 운영해 92%의 합격률을 달성했는데, 2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해 학습동기 강화 집단상담을 시작으로 1대1 멘토링, 주요과목 강의, 기출문제 풀이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끝에 23명(92%)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꿈을 두드립니다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지원사업 외에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업중단 숙려상담’, 청소년들의 재능을 나누는 ‘꿈드림 서포터즈’, 책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드림 업’, 경작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키움세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등대가 되어 주세요

‘반디반’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을 이룬 000 군은 “반디반은 검정고시 학원이 전무한 파주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오아시스나 다름없다”라며 “저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03

부산광역시 중구

빛나는 너의 꿈, 꿈 지원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의 푸른 꿈 더 푸르게 푸르게



포기하지마, 너의 꿈을 지원해 줄게

부산 중구 주민복지과에서는 가정 및 경제 문제, 멘토 부재 등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후원금 사업으로 '빛나는 너의 꿈, 꿈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 계획서는 나의 미래 명함

'빛나는 너의 꿈, 꿈 지원 프로젝트'는 2회의 공모를 통해 '나의 꿈 계획서'를 제출한 20명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꿈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도전하는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도 정보도 없어서 속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000 군은 인근 컴퓨터프로그램 전문학원에 주말반을 상담 받고 4개월 동안 지원받아 자신의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아들이 대견해요

000 군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커가는 아들의 꿈을 도와줄 곳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면서 아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고 학교와도 연결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활동까지 특기로 남길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 아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더욱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4

대구광역시 북구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통역풀

마음속 어려움도 통역이 되나요?



왜 결혼이민자들이 통역에 절실할까요?

결혼이민자는 아직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로 인한 정보 부족, 병원 및 공공기관 이용의 불편함, 가족 갈등 등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는 ‘다문화 통역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통역을 도와주나요?

‘다문화 통역풀 사업’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국 언어(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로 25명이 통역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언어 및 통역풀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통역선생님~

주민 000 씨(32세, 베트남)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칠곡경북대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의사가 식단관리에 주의하라며 ‘멸균식?, 저염?’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말을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통역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센터에서 오신 통역선생님과 함께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도 전달하고 아이의 병에 좋다는 음식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통역풀 서비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05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는 내·외국인을 따지지 않는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준다고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3세~5세) 등록 외국인 아동 600여 명이 매월 보육료 22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이 사업은 외국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보육료를 지원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면 됩니다. 안산시는 이 사업에 이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학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참 좋은 정책입니다

단원구에 사는 시민 000 씨는 “우리나라 최대의 다문화도시인 안산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그 돈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선순환 기능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한국어가 늦으면 똑.똑. 노크하세요



왜 다문화아동은 한국어가 늦을까요?

다문화자녀의 어머니는 대부분 결혼이민자로 자녀양육과 가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서툰 한국어와 모국어의 이중사용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머니들은 자녀의 언어발달 장애를 알기 어렵고, 안다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검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다문화자녀의 이런 장애는 단순 언어발달지연을 넘어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은 물론 가족들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치료해 주고 있나요?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시 언어영역의 심화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과 언어발달사업 참여자 중 발달지연으로 의심되는 아동은 지정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면 소요된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추진 중이며, 그 첫걸음으로 우선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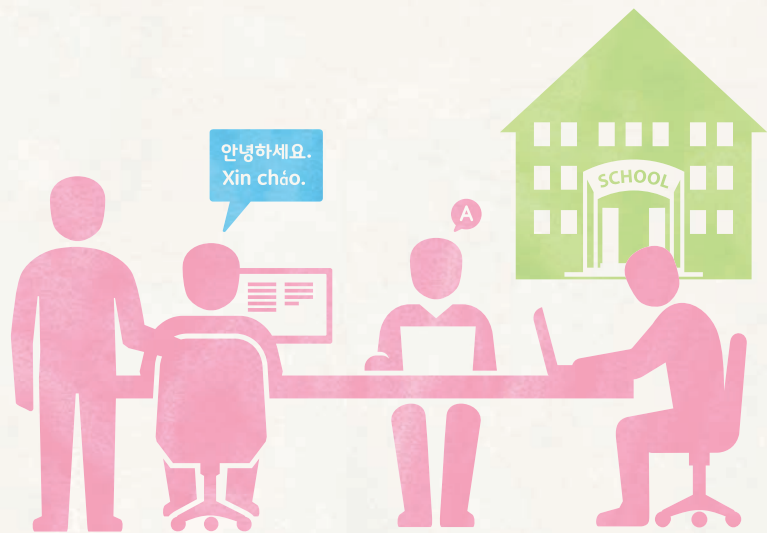
우와~ 우리 아이 한국어가 늘었어요

얼마전 5살 난 아들의 언어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000 씨는 “우리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한국어가 늦어 내 탓인 거 같아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었는데, 병원 검사를 하고 나서 아이의 발달에 맞는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큰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7

경상남도 거제시
작은 다문화학교

다문화가족 가까이 12개의 작은 다문화학교



센터가 멀다면 작은 다문화학교로 오세요

거제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권역이니까 가까이서 배우세요

작은 다문화학교는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교회, 기업체 등 12개 권역에 지역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기초반, 외국인 특별반을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 및 지역 문화 탐방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고 한국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등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로 다문화학교를 다녀요

거제시 남부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000 씨는 “하루에 버스도 몇 번 다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운 곳의 작은 다문화학교에 가서 한국어 실력도 늘고, 친구도 사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즐거운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08

경기도 구리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에게 희망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경제자립을 챙기는 구리시

구리시는 결혼이민자들의 희망 취업직종 교육을 개설해 취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자아발견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도내 새로일하기센터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Make-up, 꿈으로 물들다! 뷰티아카데미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아실현을 돕는 자원봉사

이 뷰티아카데미 사업은 구리시가 예산을 마련하고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지역사회활동가의 후원을 받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손마사지 등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9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6명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취업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철순·팔순 효잔치와 경로당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께는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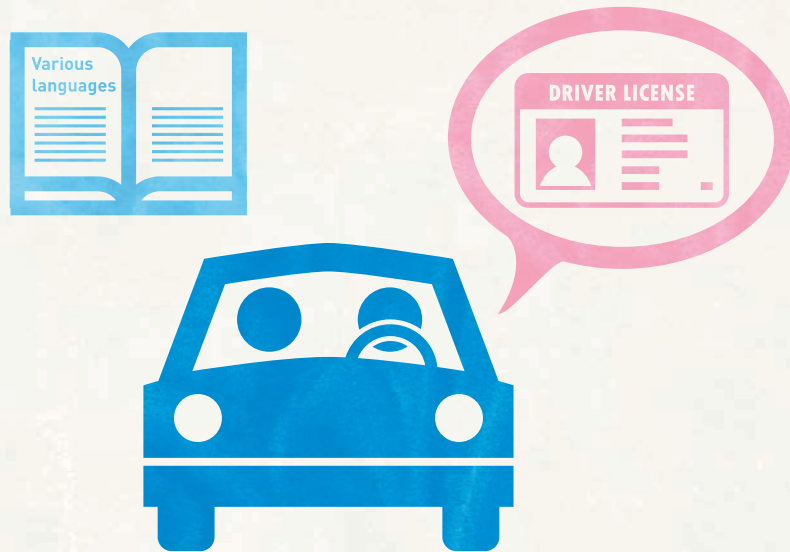
베트남에서 온 000 씨는 뷰티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생겼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봉사활동, 실습시간을 갖고 한국 어르신도 만나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재밌었다. 처음으로 마사지를 받아 봤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보람 있었다. 메이크업 분야로 꼭 취업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09

경상북도 봉화군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 필기 취득반 운영

한국어가 어려워도 한국운전면허 따기 쉬워요



어려운 교통법규를 쉽게 설명해줘요

경북 봉화군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7월~8월 운전면허 필기반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강좌는 결혼이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어려운 교통법규를 보다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출신국 언어로 만든 문제집이라 편했어요

특히 국가별 언어로 제작된 학과시험 대비 문제집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운전자의 예절, 인명존중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 등 기본에 충실하게 교육하였습니다. 이 운전면허필기 취득반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에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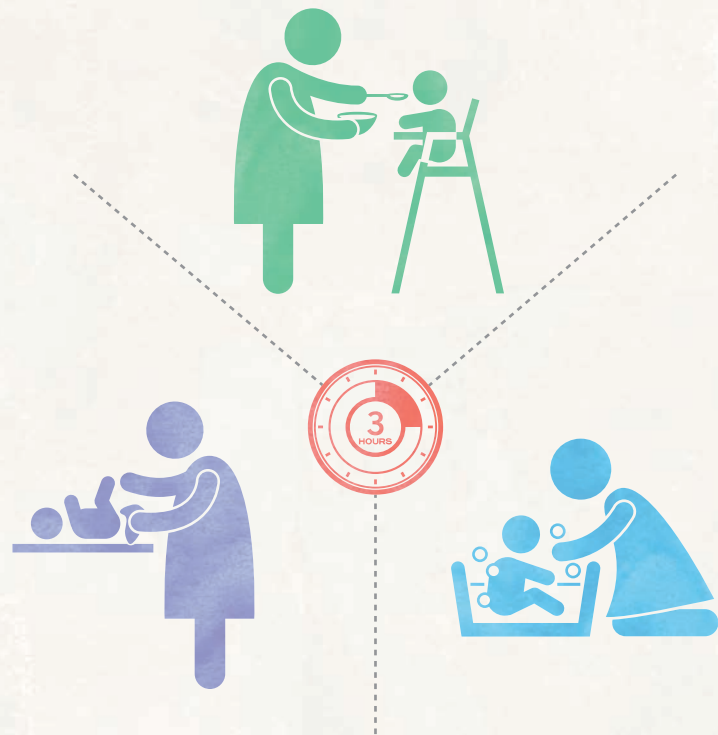
빨리 면허 따서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운전면허 필기반 수강생 000 씨는 “옆에서 운전하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운전면허를 토대로 사회생활을 더욱 넓힐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하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10

경상북도 안동시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가 돕습니다



모국에서의 출산처럼 도와드려요

안동시는 1개 읍, 13개의 면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형 중소도시로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도우미지원사업은 그 중 하나.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및 양육이 대부분 어린 나이에,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이루어져 갖게 되는 심적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고 한국 사회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우세요

대상자별로 주 2회 가정방문을 하여 3시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출산, 산후조리, 영아양육, 정보제공, 출산용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0일 기념 사진촬영 서비스'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다문화가정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출산 앞둔 결혼이주여성에게 추천해요

000 씨(베트남 출신)는 “출산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쓰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이드 어렸고 처음 출산이라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랐는데 파견된 출산도우미가 나와 아이를 돌봐 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2018년 셋째가 태어나면서 다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줘서 너무 만족했다. 같은 안동지역 출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라며 추천을 했습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과 함께하는 다감이 봉사단

다~문화가족 서류 다~통번역 해드려요

우리는
다감이 봉사단



공무원이 직접 통·번역을 해줘요?

국제혼인 및 귀화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발맞춰 대전시 동구에서는 이주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으로 구성된 봉사팀으로 국제혼인신고자, 귀화자 등에게 통·번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류를, 얼마만에 번역해 주나요?

이름은 다감이 봉사단.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1년 공무원다감이 봉사단을 시작으로 2017년 구민다감이 봉사단을 추가 모집하여 민원인이 요청하면 국제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서류를 24시간 내에 번역해주고, 외국인 민원 동시통역도 해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해요~ 다감이 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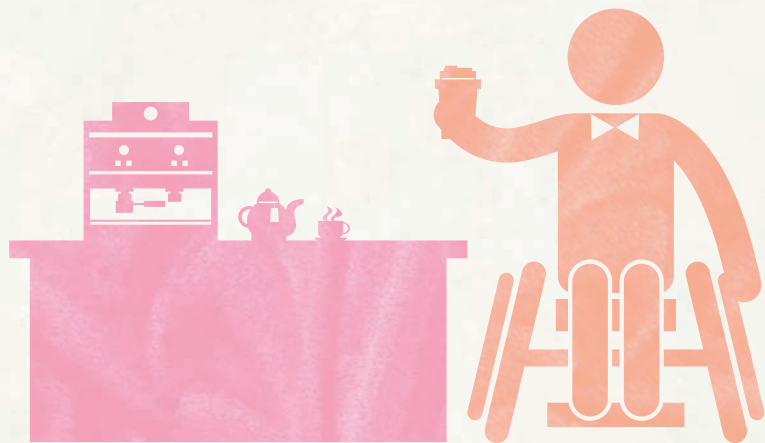
다감이 봉사단을 이용한 000 씨는 “필리핀에서 출생한 딸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영문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해서 난감했었다. 할 수 없어 돌아가려는데, 번역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히 출생신고를 마쳤다. 구청에서 이런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2

강원도 강릉시

장애인 바리스타 취업지원 ‘늘품 커피교육’

장애는 취업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 없는 취업활동을 위한 첫걸음

강릉시는 지역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고자 강릉시장재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취업지원 서비스 ‘늘품 커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강릉시의 지원으로 복지관 내에 커피 교육장을 설치하였고, 현재(2018년)까지 매주 2회 총 18명의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을 돕고, 관련 업종에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이 자신감을, 취업이 성취감을 높여요

실제로 참여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크게 달라진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우선 정서·평가·정보·물질적 지지에 해당되는 사회적 지지는 사전 50점에서 101점으로 102% 향상되었고, 의식주·여가활동·가족 등이 해당되는 생활만족도는 사전 70점에서 89점으로 29%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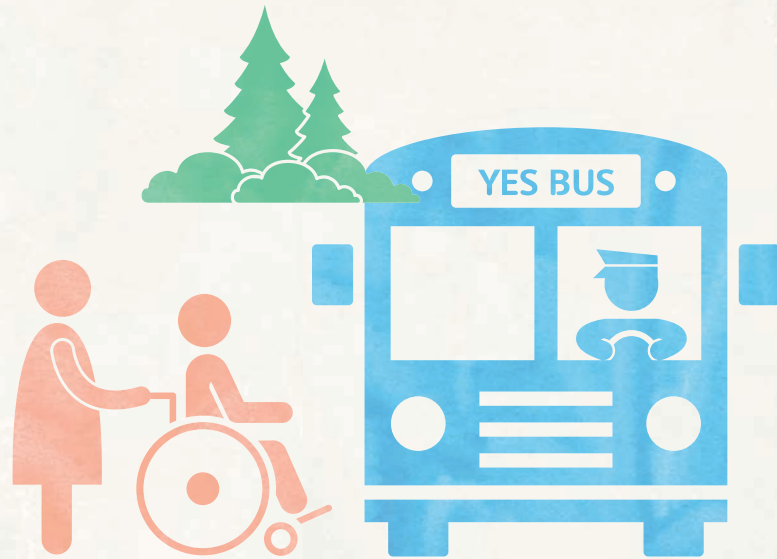
꿈을 이루는 장애인이 많아졌으면

2018년 취직이 된 성인 지적장애인(3급) 000 씨는 말합니다 “늘품 커피 교육을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는 내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스스로 돈도 벌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처럼 꿈을 이루는 장애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3

경기도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YES BUS 운영

어디든 장애인의
날개가 되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 YES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YES BUS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인승 버스와 버스기사, 유류비, 통게이트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장애인 가족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더 넓은 세상 YES

주요사업으로는 문화, 역사, 탐방, 체험, 교육 등을 계획하는 주체에게 지원하는 ‘해피버스데이사업’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역사, 여가 체험기관과의 MOU 및 공모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지원하는 ‘연결고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여행 YES

YES BUS 사업을 이용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장애인 편의 버스와 전문 기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소 여행을 다니기 쉽지 않았던 이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4

강원도 횡성군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

신청은 간편하게
수도요금은 가볍게

마음까지 50% 가벼워집니다

횡성군은 지난 4월부터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를 통해 수혜대상을 기존 236세대에서 402세대로 확대시켰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이 시책은 수도요금 징수 업무에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횡성군 기초수급자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서 수도요금을 깎아 드릴게요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에 몸이 불편하다 보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파악하고, 읍·면 복지부서에서 매달 수급자 변동사항(신규/중지)을 상하수도 사무소로 보고하면 수도요금을 일괄 감면(또는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이 실시간 요금감면 여부에 반영되어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값 걱정 덜고 살아요

칠순 나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000 씨는 “수도 물은 늘 같은 양으로 쓰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요금이 확 줄어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감면신청을 해준 덕분이었다. 매월 수도요금을 절반만 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15

경기도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교통에도 약자 없는 세상이 되도록



약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교통 특공대

수원시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의 철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 연구하는 교통 특공대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기술을 지원하고 설치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하고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마음을 읽는 교통 특공대

얼마 전 지원센터의 기술자문을 통해 보행개선 공사를 한 횡단보도 이용자 000 씨는 “바로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경사로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유모차 통행이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에 공사를 한 이후에는 높이 차이가 줄어들어 한결 편해졌다. 유모차 어머니나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해 더 많은 곳이 편리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6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아기와 산모까지 돌보는 공공서비스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간다고요?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해 도서·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민간산후조리원은 2014년 7월 기준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4개 시(7곳)에만 있어 나머지 시·군의 산모는 인근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도 8곳에만 있어 도서·농어촌 지역 산모들은 이용하기 어려웠지요.

전남 어디서나 편안하게 출산하세요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군의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출산·분만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설치·운영하는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을 2014년 8월 수립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해남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9억 6400만 원을 투입해 산모실 10실과 모자동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은 같은 해 9월 개원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354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감사원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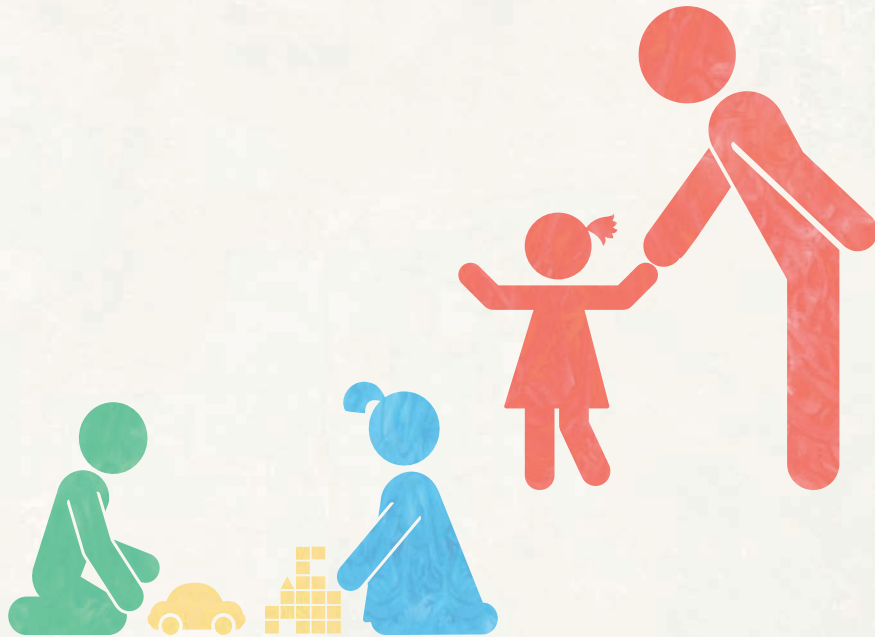
공공산후조리원 덕 톡톡히 봅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000 씨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첫째 아이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둘째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됐다”며 “최신 시설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조용해 마음 편히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7

경기도 양주시

지역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 모델 운영

외톨이 아동,
주민 손으로 돌본다

아이들이 주말에 방치되고 있어요

양주시 남면에 사는 다문화 아동 파티마네 집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스쿨버스가 다니는 평일 외에는 동네 밖에 나가는 것을 엄두도 못냅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토요 방과 후 수업이 있어 주말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그 수업마저 폐지되어 학교에 갈 수 없고 외국인 부모님이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서 주말에는 집에서 누구의 돌봄도 없이 혼자 방치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아동, 지역사회가 보듬어요

양주시는 이런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교육기관인 경동대학교, 사회적교육 기업인 하모니와 함께 지역공동체 아동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동이 토요마을학교’는 8개월간 테마가 있는 종일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티마를 비롯한 참가 아동들은 더 이상 주말이 외롭지 않고, 항상 토요 마을학교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양주시와 주민의 돌봄 하모니

남면주민자치위원장 000 씨는 “항상 지역의 아동복지정책에 외면받아 고 민되었지만 주민들만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감동이 토요마을학교’운영으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 향후 돌봄공간을 만들고 돌봄교사도 양성하여 더 많은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8

전라남도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아이는
저희가 돌볼게요
생업에 전념하세요



군(郡)이 아이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영광군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62% 이상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郡)이 여성일자리도 함께 키웁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성들의 취업·창업 교육까지 감안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원거리 교통 불편 등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관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지식을 쌓고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아이돌보미 30명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군(郡)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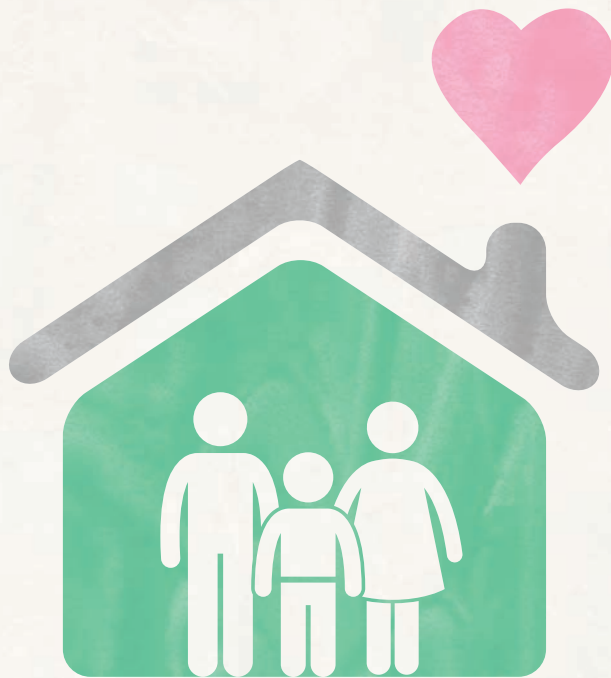
000 씨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치킨가게를 한다. 넷째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어 누구한테 맡기기에 걱정이 앞섰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아 마음이 놓이고 경제적 부담까지 줄었다. 신생아인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기고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9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폭력피해아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가정폭력에 마침표 자기성장에 느낌표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자기성장의 주인공으로

전라북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중인 폭력피해아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이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기성장 프로그램, 부모 양육훈련 프로그램, 가족소통 프로그램, 아동폭력지킴이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먹한 가족에서 손 잡는 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검사 결과, 심리·정서적 측면, 자기표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척도가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가족 결속력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평소 다툼이나 갈등이 많았던 가족이 협동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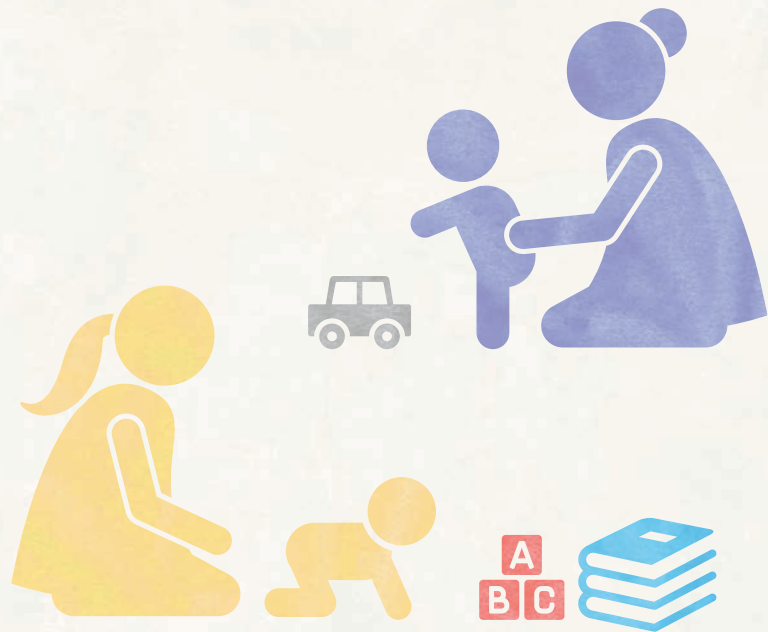
폭력의 끝에서 가족변화의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폭력지킴이단 운영 및 시설, 학교 내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는 가족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아동폭력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수눔음 육아나눔터

육아도 품앗이, 제주의 육아 나누기



육아, 혼자 고민 말고 함께 키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혼자하기 힘든 육아와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6년부터 수눔음 육아나눔터 공간을 조성하고(35개 소), 육아공동체(55개 팀)를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웃 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소소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와 공동체가 함께 키워요

수눔음 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 자연과 친구가 되게 하고, 엄마표 간식을 함께 준비하며,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육아정보와 서로의 육아용품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이 나눔터는 육아를 매개로 한 공동체 문화로 더 큰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행복도 키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000 씨는 “애들과 집에만 있자니 저도 아이들도 힘들어서 근처 복지관 수눔음 육아나눔터에 가보았는데 놀이방 이용 신청도 간단했다. 이제 멀리 키즈카페 투어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체육이랑 만들기 프로그램, 텃밭가꾸기 등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다. 수눔음 육아나눔터의 핫 정보를 SNS에 공유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1

전라북도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무료배달서비스

도서관이
장난감을
배달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라고요?

순창군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올해 정식 개관하여 영유아를 둔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도서관이 순창읍에 있어 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많은 아동들이 장난감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약 버튼만 누르면 장난감이 배달돼요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예약한 장난감을 해당 면사무소까지 배달해주는 예약 배달 서비스와 배달 차량에 여분의 장난감을 비치하여 현지에서도 바로 회원가입 후 대여를 할 수 있는 이동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의 시간에 맞춰 오전과 오후 면별 1회씩 순회방문하여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집 근처서 받아봐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000 씨는 “평소 농사일 등으로 인해 바빠서 아이 장난감을 빌리러 멀리 읍까지 나갈 수 없었는데 직접 면까지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배달해주고 또 반납까지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겠으며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

대구광역시 동구

도심 흉물이 희망의 집으로, 행복동지사업

빈집을 나눠요
희망을 나눠요

왜 빈집은 많은데 우리 집은 없을까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에 사는 000 씨(56세).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아내는 거동이 불편하고,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에게는 공부방조차 내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사는 정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동구청의 ‘행복동지사업’으로 오씨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집을 임대해 준다고요?

‘행복동지사업’은 방치된 폐가나 빈집을 집주인에게 무상임차하고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의 손길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사업입니다. 예산은 전액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호 완공이 목표이며, 주거안정과 도심미관 개선, 나눔 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기 방이 생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가족이 살 집의 꿈을 이룬 000 씨는 “이제 아내가 편하게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방도 4칸이나 돼 처음으로 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갖게 되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오씨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매달 20만 원씩 저축하게 하여 자립 의지를 높이고, 5년 뒤 다른 집으로 옮길 때 여유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23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함께 사는 사회 빌려 주는 사회주택



민·관이 손잡고 집 문제를 풀어 볼게요

전주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청년·장애인·노인·맞벌이부부 등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민·관 협력 사회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20년까지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회주택을 지어 드려요

지금까지 2017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0가구(노인, 청년, 한부모가정 등)와 시 소유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6가구(청년 달팽이집) 총 16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여성안심 사회주택 15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를 거쳐 주택을 짓거나 재단장하고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요

청년 달팽이집에 입주한 000 씨는 “집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전주의 청년들이 많다.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하여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고립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목돈이 없고 주거비가 부담스러워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힘들어 한다. 그런데 사회주택에 입주해서 또래 청년들과 살게 되면서 주거안정을 찾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진출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게 되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24

전라북도 완주군
청년 쉼어하우스 & 청년거점공간

집을 공유해요 미래를 공유해요



완주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요

전북 완주군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만 원에 청년 쉼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1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2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방은 각자 사용하며 거실, 주방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총 6개소,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쉽과 배움을 함께 쉼어해요

완주군 ‘청년 쉼어하우스’는 지역 원룸 평균 임대료가 월 30만 원인 것에 비해 월 5만 원(연 60만 원)으로 연간 300여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원룸보다 넓고 쾌적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전용으로 확대 조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입주 청년 000 씨는 “청년 쉼어하우스는 주거가 어려운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 서로 어울리는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청년이 공간을 만들고,공간이 청년을 만들어요

또한 지난해 10월 조성된 청년공간 1호점 ‘플래닛 완주’는 교육과 문화행사, 청년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산 2호점은 청년공간 기획단을 만들어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000 씨는 “고산 청년공간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커뮤니티 공간, 휴식공간, 공유책방 등이 들어서며 주거와 일자리와 같은 정보교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25

광주광역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빛고을에
청년일자리가
빛나고 있어요



왜 청년들에게 ‘일경험드림’일까요?

광주광역시가 장기 미취업 상태 방지와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4개월 씩 모두 3개 기수로 운영돼 총 530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등 6개 유형으로 운영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3기 참여자 250명이 180곳 사업장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했습니다.

‘일경험드림’이 박수 받는 이유는 뭔가요?

현장의 구체적인 직무를 경험하면서도 주 25시간 근무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전담 매니저가 청년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특히 올해에는 각종 소모임 운영을 지원해 청년 간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스터디 모임과 인사담당자 교류 등이 이뤄지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의 기회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 밝아지는 청년일자리 희망의 빛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사례로 제시되었고 국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기 참여인원이 500명, 참여기간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민간취업과 지역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6

전라남도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잡어스(JOB-US)’

버스에 일자리를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일자리 버스예요

전라남도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로 개조한 25인승 버스가 영암, 강진, 장성, 곡성, 해남, 진도, 임자도 등 도내 곳곳을 방문하여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필요한 구인기업에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직업상담사 2명, 운전기사 1명).

어떻게 이런 오지까지 왔냐고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0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137명과 취업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취업상담이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들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왔느냐”며 “취업상담도 직업적성검사도 처음 받아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취업상담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사후 서비스 해드려요

000 씨(진도 거주, 55세)는 “실업자가 된 지 5개월째”라며 상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의 면접을 봤고,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나랑 상관없는 업무를 시켜서 고민이 많아 상담사에게 고충을 말했다니, ‘딱 2주 만 다녀보고 그래도 다른 업무를 계속 시키면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다행히 원래 업무를 맡게 되어 지금은 기쁘게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7

광주광역시 동구
더 드림(The Dream) 희망엽서

소원이 엽서를 타고 돌아온대요



소원을 엽서로 받는다고요?

광주광역시 동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인터넷 매체 활용이 어려운 가정이 위기상황을 엽서에 적어 보내면, 이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더드림 희망엽서'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공중이용시설 40개소에 엽서 배부대를 설치하고 위기가정의 사연이 담긴 엽서는 동구청을 수취인으로 하여 요금을 후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소원은 어떻게 들어주나요?

엽서사연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에게는 공적(긴급복지, 기초수급 등) 지원은 물론 민간후원 연계지원을 하고 있어, 희망복지지원단의 속 시원한 복지서비스라는 사업의 실제효과와 복지허브화라는 홍보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희망엽서로 희망을 봤어요

희망엽서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은 주민 000 씨는 "전기요금이 밀려서 단전통보를 받고 막막하던 차에 우연히 알게 된 희망엽서로 사연을 보냈다"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아 한시름 놓았고, 사례관리하는 분까지 찾아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28

경상남도 남해군

내 이웃 찾아Zoom 우체통 운영

노란 우체통으로 위기가정을 돕습니다



우체통이 어떻게 위기가정을 돕나요?

남해군 서면 행정복지센터는 본인이나 이웃 등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위기 가정이 주변의 시선에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내 이웃 찾아Zoom (zoom)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우체통 옆에 있는 메모지에 사연을 적어 넣으면 담당 주무관이 주 1회 수거하고 접수가정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라면 누구나 사연을 넣을 수 있나요?

우체통은 모든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어요. 4개월 동안 48건이 접수·처리 중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면 노구마을 85세 한 할머니의 경우 남편과 사별하고, 1남 3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가 4명 모두 배우자와 사별·이혼하면서 할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 거기다 4년 전 허리 수술 후 매일 약으로 버티는데, 병원 가는 길에 노란 우체통을 보고 이장님에게 사연을 적어 달라고 해서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노란 우체통 덕분에 살 수 있었네요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담당 주무관이 상담을 와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고, 7월초에 생계비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어 이젠 기초생활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병원을 마음 놓고 다닌다. 정말 고맙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어렵다고 공공 혼자 알지 말고 사연을 보내라고 말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을 위한 꿈잠이불빨래방

혼자 사는 어르신께 행복한 미소까지 배달해요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이라고요?

꿈잠이불빨래방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의 이불을 수거·세탁·배달하면서 자연스레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불편한 사항도 해결해 줄 수 있어 고독사 및 독거노인 자살이 심각한 요즘 이를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와 한성모터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여 2018년 7월말 현재 수영동, 광안1동, 민락동, 홀트복지관 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탁한 이불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달한다고요?

실제 이런 노력으로 수영구는 2017년에 고독사 및 노인자살을 제로라는 결과를 이루어냈고, 독거노인의 불행한 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잘 세탁된 깨끗한 이불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과 이웃의 관심과 행복까지 배달할 계획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요즘 향기나는 이불 때문에 잠자리가 즐겁다는 000 할머니(가명, 1936년생)는 “전에는 아무도 안 오는 방에서 매일매일 낯간 사람처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 마치 산 송장 같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불을 빨아다주면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들고 오고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 이불을 덮고 누우면 어릴 적 엄마가 덮어주던 향기 좋은 이불이 생각나서 소녀가 된 것처럼 너무 좋아.”라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30

전라북도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활용 ‘부모안심 톡’ 서비스

상수도 체크로 부모님 안심체크 해요



상수도를 확인하면 부모님 안전도 확인돼요

고창군에서는 상수도 원격검침을 본격 시행하면서 각 가정의 실시간 사용량을 분석하고 2일 이상 상수도 사용이 없는 가정에 해당 주민과 연락해 확인하거나 또는 연고자에게 연락해 안전을 확인해 주는 ‘부모안심 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독사 방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이에요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누수 확인 등이 가능하여 군비 절감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어르신들의 고독사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살지만 부모님 걱정을 덜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재외군민 000 씨는 “아버님이 고향에서 홀로 지내고 계셔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걱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고창군과 경찰서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니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1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적 약자 스마트 안심지킴이 서비스

노약자, 병약자 스마트하게 지켜드려요



불안한 부모님·아이들, 우리가 지켜요

전남 순천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스마트 안심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매 어르신, 고령자, 어린이 등 100인이 우선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수요자 호응이 높을 경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디 가셔도 안심, 무얼 하셔도 안심

이 서비스는 위치추적기를 착용하게 되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안심지역을 이탈하게 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긴급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안심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찰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실종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치추적 단말기는 2년간 의무 사용을 조건으로 무상 배부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월 통신료 5,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어머니를 지켜보니까 안심

안심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 000 씨는 “시골에 거주하시는 어머니 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다. 날마다 퇴근 후 찾아볼 수도 없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어머니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평상시 생활반경을 벗어나게 되면 문자메시지가 오니 마음 놓고 생활하게 되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어머니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줘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2

전라북도 전주시
결식아동을 위한 ‘엄마의 밥상’

엄마의 마음으로 밥상을 배달해요



성장기 아동에게 아침밥이 중요해요

전주시는 ‘밥 굶는 시민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결식자 발굴계획을 진행하던 중 생각 외로 많은 아동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결과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토론을 통해 아침도시락 지원 사업인 ‘엄마의 밥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도 밥 굶는 사람이 있냐?’며 사업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실제로 지원하는 업체도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들에게 아침식사 제공이라는 선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년째로 177세대 280여명의 아동들의 아침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 매일 아침 7시에 찾아가요

‘엄마의 밥상’ 사업은 계약된 전문 도시락업체가 매일 아침 7시 밥, 국, 3찬을 곁들인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이 도시락을 받은 아이들은 정성, 맛, 영양이 담긴 밥과 반찬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결식을 지원하던 이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어느덧 7억여 원의 모금액이 생겼고, 이 모금액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의 아동 1005명에게 마음의 양식을 전하는 희망도서 지원사업인 “지혜의 반찬”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넘어 행복까지 배달해요

엄마의 밥상’을 배달 받은 000씨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생계를 꾸리다보니 지쳐서 집에 오면 밥 차려 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미안했는데 ‘엄마의 밥상’이 배달된 후 저녁 먹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 줄 시간이 생겼어요. 이걸 단순한 도시락배달이 아니라 행복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식당 엄마밥

방학에도 엄마밥 먹으로 와요



엄마, 방학에도 밥걱정 말아요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하여 금천구 내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마을식당 엄마밥’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마을식당에서 엄마밥 먹어요

‘마을식당 엄마밥’은 학기 중 조식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 안 돌봄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방학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금천구 학생들과 아침결식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자율식비함을 놓아 340,500원의 기부금도 모았습니다. ‘마을식당 엄마밥’은 올 겨울방학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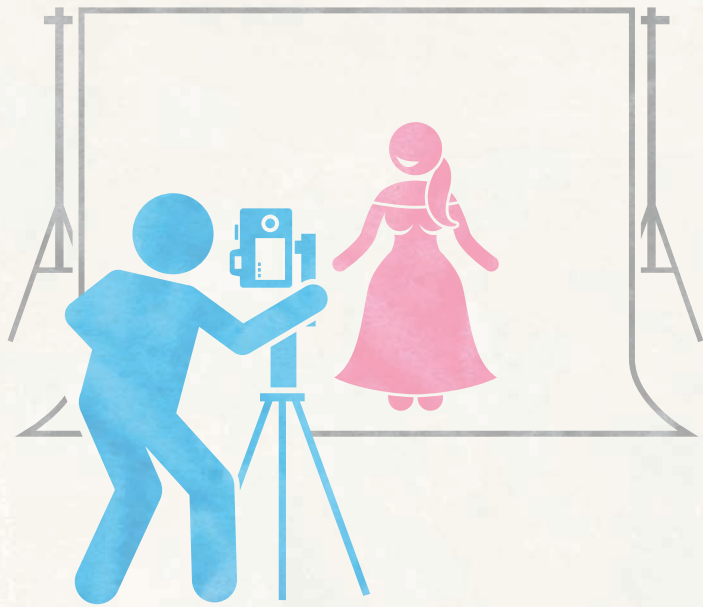
밥도 먹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공간이에요

자녀들이 ‘마을식당 엄마밥’을 이용한 문교초등학교 학부모 000 씨는 “맛별이 가정이라 방학 때에는 아이들 점심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마을식당 엄마밥’에서 두 아이가 식사를 해결하여 한결 걱정을 덜었다. 식단도 친환경 식자재로 구성됐고 아이들도 믿고 맡길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34

서울특별시
노숙인 사진 교육 희망프레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찰칵~ 셔터를 눌러요



찰칵~ 희망을 찍어요

서울특별시시는 조세현 사진작가와 손잡고 사진 교육을 시작하여 노숙인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한 사진 전문과정 희망아카데미에는 해민스님, 영화배우 이서진, 소설가 은희경, 피아니스트 노영심 등이 멘토로 활동하며 노숙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찰칵~ 희망사진가가 새로운 인생을 찍어요

조세현의 희망프레임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사진관에는 희망사진사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중 노숙인 희망사진사 출신 1명은 희망프레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희망사진사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은 인생임을 증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찰칵~ 부부의 인연까지 찍었네요

사진 교육에 참여한 노숙인 000 씨(남)와 000 씨(여)는 함께 수업을 들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으며, 2018년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 000 씨는 “예전에는 사람들과 인연 맺는 것이 두려웠는데, 희망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용기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세상과 소통하게 만들어준 서울시와 조세현 작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35

서울특별시
노숙인 응급처치교육

노숙인 응급상황 노숙인이 해결해요



노숙인 응급상황, 걱정마세요

노숙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여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노숙인이 노숙인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에서 1년에 55회,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노숙인을 살려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배우는 이 교육은 질병 있는 노숙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노숙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숙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교육입니다. 노숙인 시설, 쪽방주민과 연계한 교육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등 타 행사와 교육장에도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응급처치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2016년 12월 따스한 채움터에서 급식 중 000씨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때 주변 노숙인과 종사자가 교육 받은 대로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급히 실시하여 목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만취 상태로 응급 구호방 내 보호중이던 000 씨가 상담 중 무의식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한 노숙인과 종사자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처치 중 119가 도착하여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36

강원도 강릉시
드림스타트 어머니 멘토단 운영

부모의 길을 멘토가 함께 걸어요



부모도 배우면서 부모가 되어갑니다

학교, 친구, 사회에 적응하는데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낯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움과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입니다.

멘토가 부모의 길을 도와 드려요

강릉시 드림스타트에서는 2017년 5월 ‘어머니 멘토단’ 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멘토단 양성과정 운영, 멘토단 활동, 멘토단 슈퍼비전 사례회의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으로 멘토와 멘티가정이 함께 체험활동을 하며 가족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모, 더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

어머니 멘토단의 멘토링을 받는 다문화가정의 000 씨는 “국제결혼으로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매일매일이 어려움이다. 그런데 멘토의 맞춤형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운전면허에도 도전해 필기시험을 통과했고 곧 실기시험을 볼 예정이다.”며 멘토의 도움에 큰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37

강원도 원주시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당신의 희망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희망하세요, 우리가 실현할게요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경로당, 무료 급식소, 복지관 등 저소득 밀집 지역을 월 2회 방문하는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상담은 찾아가는 서비스라 이웃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어려움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에서 법률까지 희망엔 제한이 없어요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 시 의료급여관리사와 법률상담자가 동행하여 건강상담, 혈압 및 혈당체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과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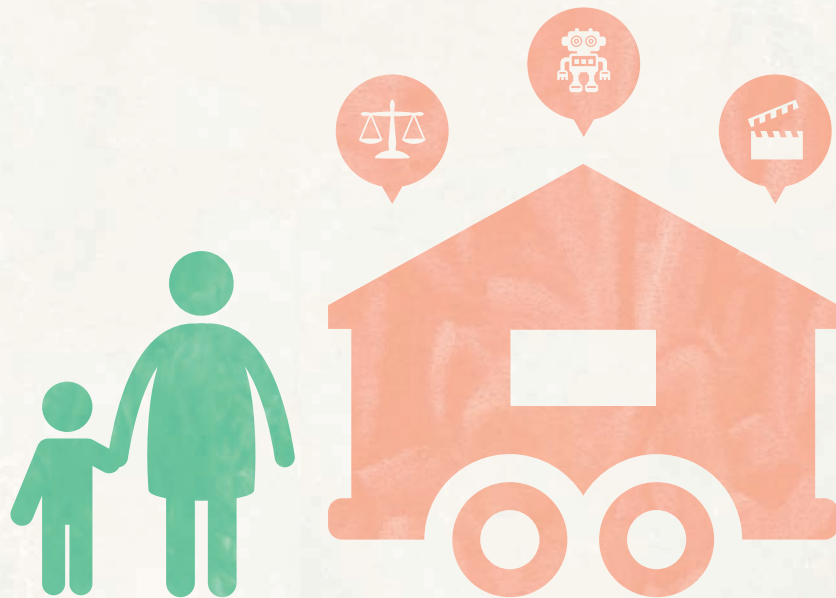
공공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립합니다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폐가에서 생활하던 000 씨의 경우 이동상담 후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생활가전 및 물품후원 연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000 씨의 경우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민간 심리상담기관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내에게 고용촉진훈련비를 지원해 자격증 취득을 돕는 등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

경상북도 성주군
참한별 이동복지관 운영

문화, 예술, 보건, 법률 마을에서 누리세요



복지혜택이 산골까지 찾아가네요

경상북도 성주군은 교통이 불편한 시골 및 산간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매년 찾아가는 ‘참한별 이동복지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10개 읍·면 1회, 오지마을 5회를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하여 매회 주민 350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가고 당신은 누리세요

2014년부터 실시한 ‘참한별 이동복지관’은 이동법차를 이용한 식사제공, 각종 문화예술 공연, 사회복지상담, 손마사지 및 네일케어, 보건서비스, 문화체험 활동부스, 다도다식 체험, 장난감도서관, 전자제품 수리, 건강검진,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장애인협회,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평소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아서 문화와 복지를 만나니 행복해요

마을로 찾아온 이동복지관을 이용한 주민 000 씨는 “평소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해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산골 오지인 우리 동네에 이동복지관이 찾아오니 성주읍까지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39

충청남도 서산시
‘찾아가는 복지 사랑방’

어르신 사랑방에 복지가 찾아갑니다



면(面)과 공공의료기관이 손잡았어요

서산시에서는 그간 읍면동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전담팀이 설치되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보건의료 전담요원의 부재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지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올해 4월 12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복지 사랑방’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가 찾아와요, 건강이 찾아와요

‘찾아가는 복지 사랑방’은 농번기를 피해 상반기(4~5월), 하반기(11~12월)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을 안내하고 혈압 및 혈당 체크와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관해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입니다.

복지사랑방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요

인지면 000 할아버지는 얼마전 경로당을 찾은 합동 방문팀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귀가 아파 통 잠을 못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직원인 그 즉시 서산의료원까지 동행해 진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중이염 증상을 발견하여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보건생활 이야기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을 채워요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건·의료 혜택으로부터 먼 이웃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어르신, 오지마을 등

계층과 지역,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요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뛰고 있네요.

꼼꼼한 손길로 케어하는 배려와 포용의 보건서비스.



“ 전국 구석구석 찾아가니까
생활 구석구석 건강해져요 ”



01

충청북도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병원에 오지마세요 병원이 찾아갈게요



왜 찾아가는 병원일까요?

나이 많은 어르신, 홀로 사는 할머니, 다문화 가정, 외딴 산골농부 등 구석구석, 각계각층 공공서비스 혜택에 목말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병원 가기가 멀다, 고장난 농기계 수리가 어렵다, 농번기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 충청북도는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어딜 어떻게 치료해주나요?

‘충북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농촌 마을을 찾아가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병원의 치료 분야는 의료 진료는 물론, 농기계 점검·수리, 영농상담, 일손 돕기 등 농업현장 속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그래서 찾아가는 병원이구나!

올 7월에도 음성군 소이면에 농업종합병원이 찾아갔는데 그 마을 000 씨는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가 어려웠는데 마을에서 양방, 한방 진료를 편하게 받았어요. 경운기, 예초기 등 농기계도 점검해주고 수리까지 해줬어요. 거기다 옥수수대 제거와 고추 수확을 거들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죠.”라고 말했습니다.

02

경상북도 영양군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

오지마을까지
건강버스가
운행됩니다

앞마당에 건강버스가 도착했어요

영양군은 영덕군, 울진군과 함께 낙동정맥 주변 보건의를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형버스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정맥 찾아가는 보건소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3개 군이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대상지역은 고령과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 통증완화에 중점을 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검사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전기사로 구성된 인력들이 마을을 순회하며 응급처치 교육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동교실,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찾아가는 보건소입니다

이 사업은 1대의 진료버스와 전담인력이 인접한 3개 군을 순회하며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지역의 의료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 000 씨는 “읍내로 진료 받으러 가려면 멀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니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좋다. 자주 오면 좋겠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03

전라남도 고흥군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치매를 찾아가요
건강이 찾아와요

그동안 치매검사 받기 힘들셨죠?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생업으로 인해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전통시장, 경로당, 터미널 등을 찾아다니며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파트너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검사와 방문하여 관리합니다

1차 치매 선별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2차 전문의 상담 및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2차 검사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약제비 지원과 맞춤형 인지강화교실 연계,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된 치매파트너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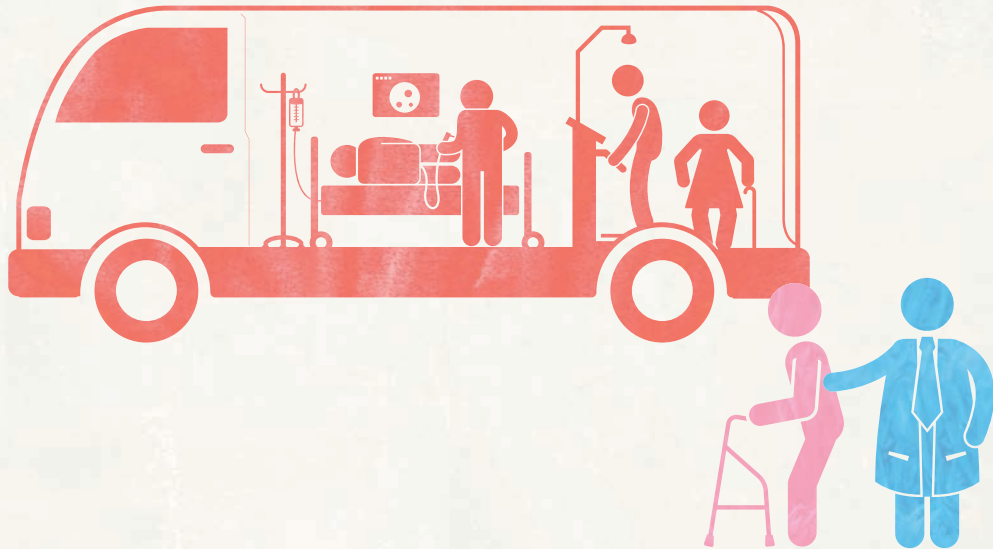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중이에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지 저하자로 발견된 주민 000 씨 보호자는 “요즘 어머니의 기억장애가 심해져서 치매가 아닐까 불안했었는데 병원에 가는 길이 멀고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혼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찾아와서 쉽게 검사를 받고 치매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04

전라남도 함평군
순회 이동진료실 운영

의료를 나른다 생활서비스를 나른다



산촌에서 오지마을까지

함평군은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촌·오지마을 중심으로 행복을 싣고 나르는 순회 이동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서 생활서비스까지

순회 이동진료실은 주 4회 마을별 순회 방문을 통해 일반 의료진료와 치과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골다공증 검사와 체지방 검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행복나눔 서비스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여 의료분야뿐 아니라 이미용, 청소, 전기, 보일러 수리 등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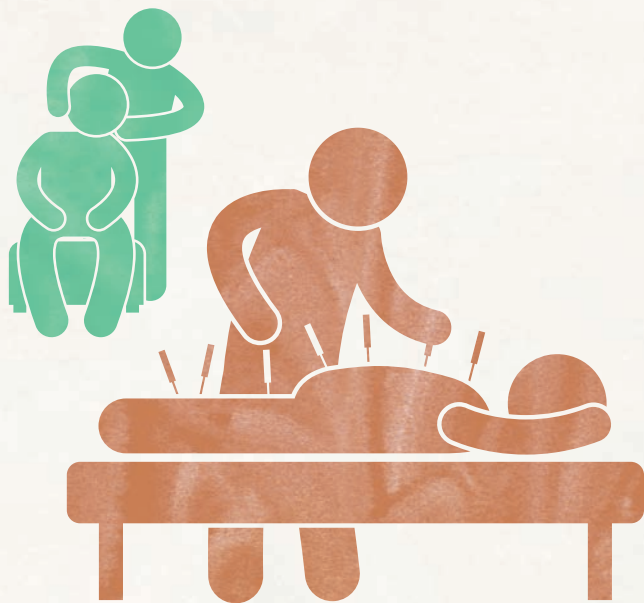
치료에서 소통의 장까지

거동이 불편하여 순회 이동진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000 할머니는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의료진과 봉사단체 회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순회 이동진료실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05

전라남도 신안군

한방실 없는 섬 중에 섬 ‘침·뜸’ 치료 사업

섬 주민 건강,
한방으로
치료를 한다

병원가려면 배타고 물으로 나간다고요?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도서 군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섬 주민들이 병원에 가려면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방서비스가 섬으로 찾아갑니다

신안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없어 잘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의낙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섬 중에 섬 ‘침·뜸’ 치료사업은 무의도서 48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침, 뜸, 한방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 진료 및 치과검진과 기타 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무의낙도 지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침을 기다리는 섬이 많아집니다

섬 중에 섬 ‘침·뜸’ 치료사업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침이라도 한 대 맞으려면 도시로 이들은 나가야 되는데, 먼 곳까지 직접 와서 한방진료도 해주고 치과검진까지 해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06

경상북도 구미시

‘감염병 Free’ 찾아가는 무료방역서비스

방역소독 Free
감염병 Free

방역소독이 찾아가니 감염병이 도망치네요

경북 구미보건소는 ‘감염병 Free’를 목표로 찾아가는 무료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열악한 환경과 모기, 바퀴벌레, 개미 등의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건강까지 올라가네요

19개 주민센터 협조로 134가구를 선정하여 월 2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시 실내, 실외, 화장실 등 무료방역과 보건소 홍보 리플릿 배부, 약품 배부, 방충식물 구문초 식재, 애로사항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무료로 소독해 주고 봉사로 수리해 주고

찾아가는 무료 방역서비스와 연계된 봉사단체를 통해 창고를 수리한 봉곡동 소재 000 할머니는 “비가 오면 연탄이 젖어서 걱정을 했는데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연탄 창고 지붕을 수리해 주고 집안팎 소독까지 해주니 마음이 편하고 고맙다.”라고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07

대구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씹고 뜯고 맛보고
건강한 치아로
즐기세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모이세요

대구 복구보건소는 치아결손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고, 틀니가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 및 보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과 문턱이 낮아졌어요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저소득 노인은 전부틀니 및 부분틀니와 지대치 보철비 등 본인부담금의 추가비용을 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과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 저소득 노인들도 이 지원사업을 통해 저작능력 및 구강기능 향상, 의료비 절감 등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도 못해준 틀니를 해줘서 고마워요

올해 처음으로 이 혜택을 받은 000 어르신은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워 해주지 못하는 틀니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이가 많다보니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거듭 묻게 되는데 그때마다 친절히 상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8

강원도 강릉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서비스

건강한 결혼생활을 건강검진으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건강검진 하세요

강릉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하여 최근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양질의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다문화가정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한 데다 유질병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곧 행복검진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조기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지만 검진을 못 받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다문화가정 형성 및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양질의 건강검진의 기회를 얻은 중국 결혼이민자 000 씨는 평소 1년에 한번 꾸준히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4월에 실시한 강릉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서 담관협착증을 발견하였다. 000 씨는 “간 절제 수술 등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09

전라남도 여수시

북한이탈 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동 건강관리 운영

건강관리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할 권리를 드려요

여수시는 북한이탈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한이탈 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동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건강지대로 이동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여수다문화복지원(다문화가족 대상) 및 전남하나센터여수지소(북한이탈 주민 대상)에서 각 분기마다 1회, 연 4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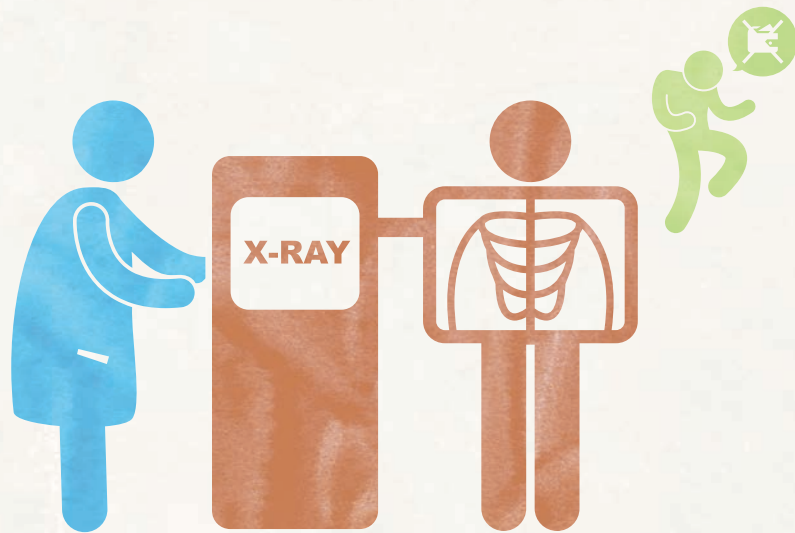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안정감이 들어요

다문화가족 000 씨는 "낮선 나라에 시집을 와서 언어부터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동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은 물론 육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까지 받다보니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0

전라북도 전주시
청년 건강검진사업

청년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세요



젊다고 다 건강한가요?

전주시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 완산진료실과 덕진진료실 두 곳에서 연중 실시되는 청년 무료건강검진에서는 B형간염 2종, 간질환 3종, 신장질환 3종, 심혈관질환 4종, 요검사 2종, 흉부엑스레이 등 총15종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우울평가(PHQ-9)와 불안평가(GAD-7)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이상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해서는 이상 정도가 낮은 수치일 경우 식습관 개선과 운동요법 등을 안내하고, 수치가 높은 경우 정밀진료와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체크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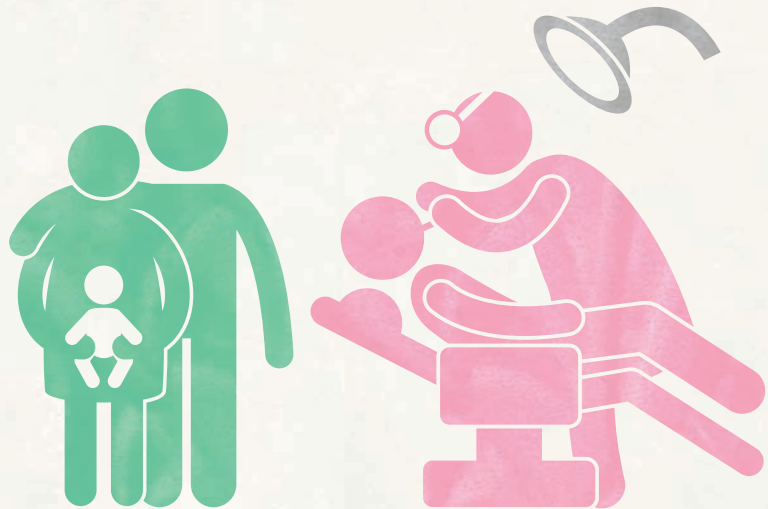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건강검진에 참여한 000 씨는 “평소 취업 스트레스로 건강 걱정이 많았는데 비용 때문에 건강검진을 망설였다. 최근 시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사전예약 없이 개인시간에 맞춰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검진 결과를 받을 때 앞으로 관리하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1

충청남도 보령시

다문화가정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다~문화가정 치아
다~관리 받으세요

다문화 가정이라면 다~ 관리 받으세요

보령시 보건소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어·문화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에 가기가 쉽지 않은 다문화가정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학기간에 가족 다~ 검진 받으세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별 구강건강 실태조사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강건강 예방 서비스(교육 및 상담, 스케일링, 불소 도포)를 제공합니다. 또한 타부서 연계 사업을 통해 각종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없이 다~ 서비스 받았어요

구강건강관리를 받은 필리핀 국적인 000 씨는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보가 부족해 예방보다는 치료하기에도 급급했다. 그런데 방학동안 가족 모두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생활 이야기

누구에게나 [가슴에 감성]을 채워요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경계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생활 속 문화 격차를 느끼는 이웃들이 적지 않죠.
계층을 넘어, 지역을 넘어, 시간을 넘어
악기 연주에서 도서배달, 영화상영, 예술버스에 이르기까지
요즘 공공 문화서비스가
국민 가슴을 문화의 감성으로 채우며 뛰고 있네요.
공기처럼 누구나 누리는 배려와 포용의 문화서비스.

“ 가슴에 감성이 넘쳐요
생활에 감동이 넘쳐요 ”



01

경기도 가평군
숲속목공교실 '피노'

학교 밖 청소년, 숲속 교실에서 비전을 찾아가요



체험과 교육에서 진로와 비전까지

가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속목공교실 피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노는 체험과 교육, 더 나아가서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습득을 넘어 사회적 성장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목공수업을 통해 생활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숲속요가수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다문화, 은둔형, 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이 어우러져 활동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 및 참여 교통비 지원, 급식 지원으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체험을 쌓으며 건강한 미래를

참여하였던 청소년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중국 출신의 000 군은 처음에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도 적었지만 숲속목공교실 피노를 통해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02

경상북도 포항시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운영

꿈을 찾아 음악회가 잡니다



문화를 키워주는 오케스트라

포항문화재단은 올해 6년째 계속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을 통해 이웃들에게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며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은 국비, 도·시비로 운영되는 대규모 예술교육이며, 지역사회형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상호학습과 협력을 배우고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공연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이며 단원은 총 60명, 강사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음악교육을 넘어 올 상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지진의 피해자 위로를 위한 소규모 공연으로 이루어져 교육뿐 아니라 지역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찾은 감동

‘찾아가는 음악회’를 관람한 한 지역주민은 “다소 어려운 환경이지만 멋지게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지진 피해지역에서 메말라 있던 감정이 힐링되는 기분이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0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운영

음악을 만나면 아이가 바뀌어요



악기연주가 키우는 긍정적인 힘

연수구는 악기를 접하기 힘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수 드림스타트 브라스 밴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는 음악교육 및 실습을 통해 아동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정서순화 및 인성을 교육하며, 합주와 정기 공연을 통해 협동정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연주하는 세상의 하모니

‘연수 드림스타트 브라스 밴드’는 교육에 필요한 악기 등을 제공하여 구립관악단과 외부강사가 강의와 연주 지도를 하고 주1회 개별연습과 합주를 진행하여 연중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향후 악기를 추가하여 폭넓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구립 풍물단과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풍물단(뿔과리, 징, 장구, 북 등) 운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친구, 악기, 음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단원으로 참여한 아동들은 “클라리넷, 트럼본, 플루트, 색소폰 등의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단원이 됐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음악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요. 공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악기도 다양하게 다루고 싶고 계속 브라스밴드를 빛나게 하고 싶어요.”라고 즐거워 했습니다.

04

전라남도 광양시

글로벌 Day (외국인 노동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으로
한국을
이해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을 소개해요

광양시는 2014년부터 내국인-외국인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기존 다문화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Day'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문화를 탐방하고 한국을 이해해요

'글로벌 Day' 프로그램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와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월 1회 한국문화 체험 및 문화시설 탐방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80%는 네팔, 캄보디아 출신이며 1회당 2~3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Day 한국생활에 도움이 돼요

한 참가자는 "글로벌 Day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매달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기다려지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05

경상북도 칠곡군

숨은 재주꾼 ‘어름사니’ 찾아가는 재능나눔 프로젝트

재능은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재능기부가 행복사회를 만들어요

경상북도 칠곡군은 최근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까지 갖춘 은퇴자가 늘어나며 재능 발휘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능기부단체인 ‘어름사니’를 결성, 지역의 숨은 재주꾼들의 인재품을 구성하여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즐거운 재능을 나눴어요

현재 6세의 최연소 회원에서 86세의 최고령자까지 210명이 ‘어름사니’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연, 전시 등 130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역 경로당을 찾아 노래와 춤, 연주 등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사각지대를 순회하며 주민이 직접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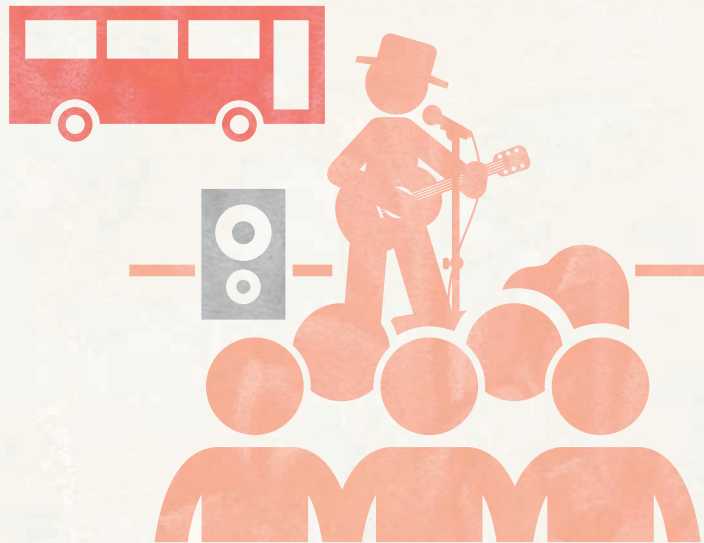
000 씨(74세)는 47년간 목회자의 길을 걷다 은퇴 후 ‘신나는 할매할배인 형극단’과 ‘어름사니’에 가입해 재능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목사직을 은퇴하고 성경을 통해 봉사 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만난 게 마술이다. 마술을 통해 전도하고 싶었던 건 웃음과 행복이었다. 이웃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일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06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신나는 예술버스 흥나는 문화생활



신나는 예술버스가 농촌을 흥나게 해요

전라북도에서는 도·농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었던 읍면동, 전통시장,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신나는 예술버스'는 농어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도 신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현재 시·군 지역대상으로 2017년 67회에서 2018년 80회로 운영 횟수를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가요, 풍물공연, 비보이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시군 요청('17년 112건→'18년 131건)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07

전라북도 김제시

글로벌 마을학당(한국어 학당)

외국인 누구나
한국어를 누구나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학당

김제시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중도입국 자녀, 시리아 난민 등 다문화센터에 나와 교육받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 주말 노동자반, 난민반, 취업처에 찾아가는 한국어학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외국인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글로벌 마을학당은 한국어학당 3개 반, 자녀학당 8개 반이 운영 중이며 매년 교육 사각지대의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맞는 반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로 배우기 어려운 한국어를 쉽게 공부해요

신평성당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000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회사를 가지 않는 일요일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당이 운영되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좋은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면서 교육비도 무료이니 참 고마운 마음이다.”고 말했습니다.

08

경상북도 안동시

어르신들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께 찾아가요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께 찾아가요

안동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의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파견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함께 수업도 받아봐요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사업’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첫째 3개 면 50명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전체 읍·면으로 확대돼 현재 14개 읍·면 311명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 미술, 음악 수업과 더불어 지역 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1학년 학생들과 수업도 진행하고 급식체험도 하는 등 초등학교 등교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움 없이 한글을 스스로 읽어요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한글교실에서 배운 한글로 문자나 SNS를 통해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 자녀들과 다양한 소통의 장이 열리고, 각종 자료들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09

충청북도 청주시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찾아가는 학습 평생가는 배움



딩동! 5명 이상이면 신청하세요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5명 이상 학습그룹을 구성하면 강사를 직접 파견해 주는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 중입니다. 강좌는 인문, 어학, 문화, 교양, 건강 등 6개 분야 34개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 및 강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딩동!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지난해에는 66개 팀 770명이 참여했고, 18년 상반기에는 29개 팀 276명이 참여하여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을 접하기 어려운 교도소 수용자, 병원 정신병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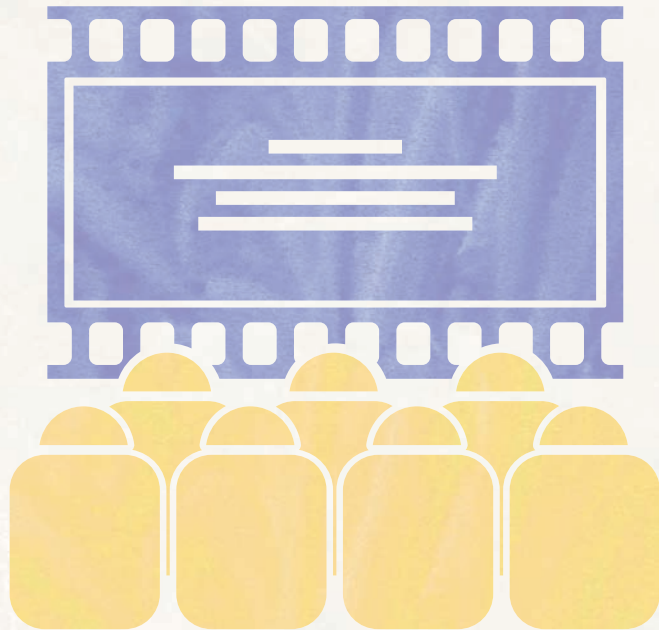
딩동! 배운 걸 평생 가르치고 싶어요

전업주부 32세 000 씨는 어린자녀도 키워야하고 문화센터는 거리가 멀어서 평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육아카페를 통해 이 서비스를 알게 된 후 카페 회원들과 그룹을 구성하여 수채 캘리그래피 과정을 신청했고,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정해 2개월간 매주 2시간씩 수강했습니다. 000 씨는 “회원들과 올 가을 전시회를 계획 중이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 전문 강사로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0

충청남도 금산군

작은 영화관 '금산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문화지도를 바꾼다

금산의 '시네마 천국' 작은 영화관

금산군은 도·농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영화관이 없던 군 지역에 작은 영화관 '금산시네마'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만드는 큰 문화생활

2018년 6월 22일 부터 8월 15일 까지 금산시네마에서 7,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금산시네마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화관 규모는 총 2관, 150석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 취지에 맞게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의 60%인 6천 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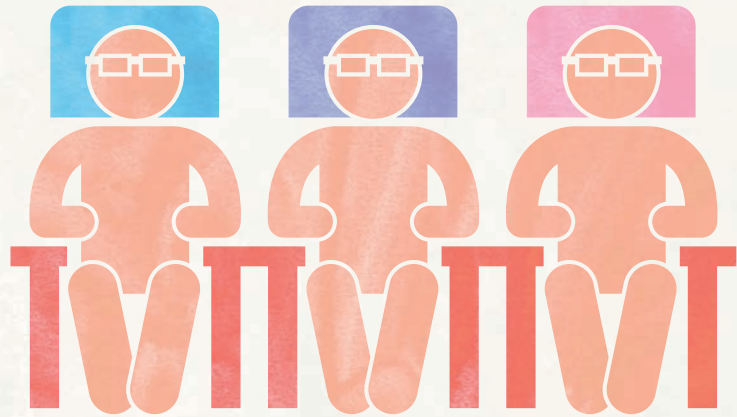
작은 영화관이 바꾸는 지역문화지도

주민 000 씨는 “평소 보고 싶은 개봉영화가 있어도 30km 넘는 대전까지 나가야 했다. 그런데 최근 차로 10분 거리에 작은 영화관이 생겨 멀리 대전까지 나가지 않아도 최신 개봉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벌써 아내와 오붓하게 3편을 봤고, 영화비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

충청북도 옥천군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

문화의 향수가 지역을 향기롭게



문화의 향수를 뿌리는 향수시네마

충북에서 2번째 작은 영화관인 '옥천 향수시네마'가 개관을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6년도부터 시작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는 총 25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1층 2개관 95석의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영화관 명칭인 '향수시네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의 향수가 주민생활을 향기롭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5월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을 초청한 무료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 최신 영화를 동시 상영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일반 영화관의 70% 이하 수준인 6천 원(2D), 8천 원(3D)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향수처럼 좋은 향기를

000 씨(86세, 군 노인회장)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 달려 대전에 가서 영화를 봐야 했는데 너무 좋다”며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고, 옥천군 이장협의회장은 “시원한 극장으로 피서를 갈 수 있어 좋다”며 “영화 보러 대전에 갔다가 여기저기 돈 쓰고 오는 일을 줄이게 돼 지역경제에도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12

강원도 원주시
도서 택배 서비스

땡동~집까지 도서관이 책을 배달해줘요



원하는 책, 택배로 받아보세요

원주시는 책을 보고 싶어도 도서관 방문이 힘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자녀·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도서 택배 서비스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일, 혹은 다음날 집에서 받아 보세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당일 혹은 바로 다음날 도서 택배가 발송되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소 3권에서 최대 10권까지 도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외부출입이 힘들어 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책이 와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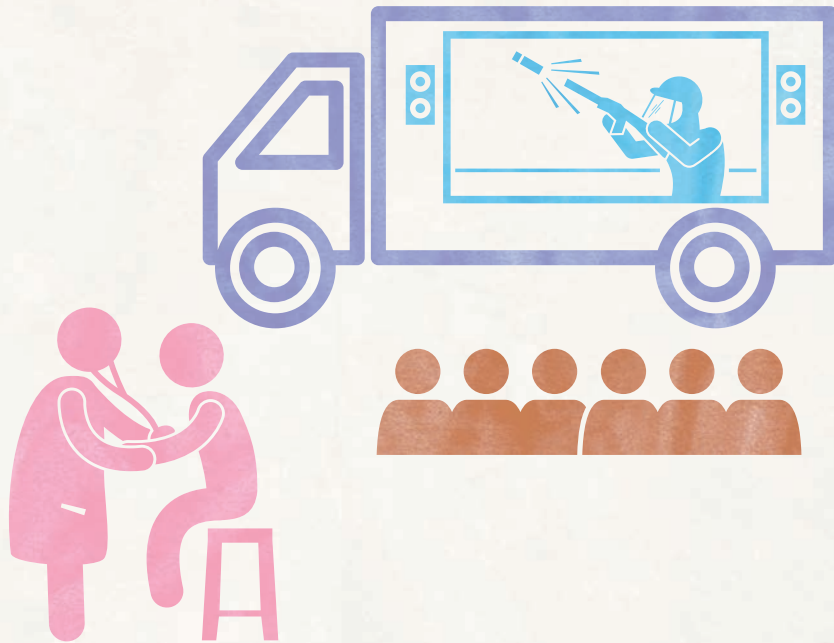
지체장애인 000 씨는 “평소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몸이 불편하니 도서관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지인을 통해 도서 택배 서비스를 알게 되어 이용 중인데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좋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13

전라북도 무주군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차량 운영

행복을 싣고 산골마을로 찾아갑니다



산골마을까지 행복이 찾아갑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의료·문화 혜택을 받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김천시 주관 의료진료 서비스와 연계 또는 단독으로 산골지역을 순회하며 의료와 영화 상영을 서비스하는 하는 의료·문화 행복차량을 운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문화 서비스를 싣고 찾아갑니다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협력해 진행하는 의료·문화 행복차량 사업은 삼도봉 생활권 산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검진전용 대형 버스에 방사선실, 임상 병리실, 심전도기, 혈액분석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과 전문의가 마을회관 등에서 진료를 하는 김천시 주관 의료서비스와 함께 무주군에서는 1톤 트럭을 개조하여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차량을 통해 주민들에게 추억의 인기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추억이 주민을 찾아갑니다

주민 000 씨는 “농촌에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영화 관람의 기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차량이 찾아와 편안하게 건강 진료도 받고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도 볼 수 있어 정말 좋다.”라며 만족해했습니다.

교통생활 이야기

마음까지 실어 나르는 [교통문화]를 채워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마을에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주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고령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실하고요.

100원 택시, 버스안내양, 콜버스 운행 등

요즘 공공 교통서비스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국민 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네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움직이는 배려와 포용의 교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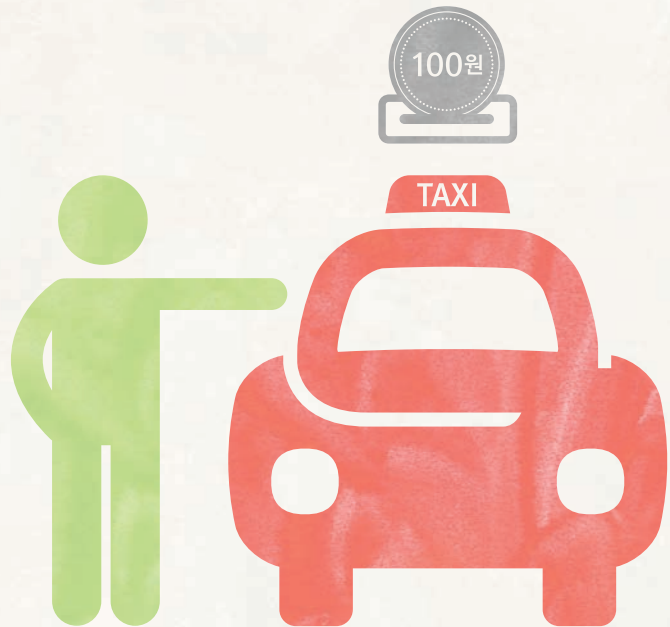
“ 나이 많으셔도, 몸 불편하셔도
저희가 발이 되어 드릴게요 ”



01

전라남도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택시요금 100원이 주민만족 100%로



택시요금이 정말 100원입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가 달지 않는 지역 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를 2015년부터 운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100원입니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요금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매월 4회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데 2015년부터 5개 마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광양읍 무선마을 외 21개 마을 744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년째 이용할 때마다 100원입니다

100원 택시를 4년째 이용하고 있는 무선마을 주민들은 “한번 읍내로 나가려면 2km 이상을 걸어서 시내버스를 타거나 비싼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100원 택시가 도입되고 나서는 싸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이 옷들과 같이 나가는 일이 많아져서 이웃들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02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귀가 서비스

일보신 후 저희가 집까지 태워 드릴게요



어르신 귀가하실 때 저희가 모실게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소호리 일대는 버스 배차 간격이 갖지 않고 경유지도 많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에 면사무소에 왕복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영남알프스 희망카’라는 사업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귀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귀가지원에서 복지혜택까지 드려요

‘영남알프스 희망카’사업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분들에게만 귀가지원반을 편성, 대상자의 요청 및 필요 시에 귀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귀가 지원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가정방문 후 주거환경 확인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버스 기다리지 마시고 귀가서비스 받으세요

000 어르신은 “우리 마을에서 불일을 보러 나갈 때는 버스시간에 맞춰 나가면 불편함이 없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버스가 자주 없어 면사무소에 10분 정도 불일을 보고 1~2시간 기다리기 일쑤였는데 귀가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편안하게 집까지 올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03

경기도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장애인의 꿈을 싣고 달리는 버스



나들이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외출과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깥세상 나들이는 소원으로 꿈을 만든 희망사항입니다. 고양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관내의 신체장애인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휠체어 리프트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꿈을 싣고 달립니다

고양시 꿈의 버스는 특수시책사업으로 2016년 4월 첫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야외활동 체험 시 꿈의 버스를 비롯한 운전기사와 유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8천여 명의 고양시 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여행콘텐츠 강화 및 경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관내 우수 관광지와의 협조를 얻어 테마사업을 발굴·운영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버스입니다

꿈의 버스로 여행을 다녀온 000 씨는 “아이들과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외출이 어려워 집안에만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꿈의 버스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04

전라북도
행복콜버스 서비스

버스도 전화 한 통으로 콜 해요



국내 최초로 콜하는 버스가 생겼어요

전라북도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불합리한 기존의 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토부에 관련 법률개정과 공모를 건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로 콜버스(DRT/수요응답형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콜버스예요

콜버스(DRT)란 기존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바꾸고, 예약제처럼 노선과 정시성 없이 탄력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즉,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대중교통운영체계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맞는 교통행정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DRT업무편람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는 등 DRT 전국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낫다고 효자버스라 불려요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에 사는 000 할머니(78세)는 요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15년 6월부터 들어오는 콜버스 덕분에요. 전화 한통이면 마을까지 오는 콜버스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을 자주 갈 수 있으니 정말 살맛난다고 하십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보다 낫다고 콜버스를 효자버스라 부르십니다.

05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이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특별한 교통 서비스



장애인, 노약자라면 특별하게 이용하세요

경상남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쉽지 않아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도내 시·군간 및 인접 대도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특별하게 배차해 드려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는 시·군 단위에서 각각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동지원센터를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도내 전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 32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조례로 정한 1·2급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버스요금의 1.5~2배 정도이며, 유료도로 이용시 도에서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특별하게 이동해요

000 씨는 “예전에는 병원진료 받으러 부산에 가려면, 직장 다니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콜센터로 전화 한통 하면 혼자서도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올 수 있다. 요금 역시 시외버스보다 저렴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라서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06

세종특별자치시

어르신 승하차를 돕는 버스안내양

어르신 승하차 저희가 책임질게요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등장했어요

오래 전에 사라졌던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버스 승하차가 힘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인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0여 명이 승하차 도우미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사고예방 도우미예요

시골벽책 5일장을 맞은 읍내 거리. 장을 본 70~80대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버스안내양이 나타나 짐 보따리를 들어주고 몸을 부축해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멀리까지 가는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며 말동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승하차 도우미는 바로 그런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서비스입니다. 세종시는 조치원 5일장 5개 노선 승하차 도우미 운영을 시작으로 읍·면 노선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내양이 생겨 버스타기 편해졌어요

전동면 송정리 000 어르신은 “안내양이 생기니까 다 좋죠. 물건을 들고 버스에도 올라가기 힘든데 들어주니까 맨몸으로 올라와서 좋죠.”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화생활 이야기

어디나 [격차없는 정보생활]을 채워요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온라인이 보편화된 시대지만
그 물결이 아직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정보화 흐름 속에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 학생들까지,
요즘 공공 정보화서비스가
누구도 정보화에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네요.
태백에서 한라까지 배려와 포용의 정보화서비스.

“ 함께 배우는 정보화 생활
같이 누리는 정보화 가치 ”



01

충청남도 서산시
맞춤형 이동 정보화 교육

어르신들도 정보화시대를 즐기세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서산시는 원거리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과 농업인들의 정보욕구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방학 중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7명 이상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장소가 결정되면 교육용 전산장비를 직접 찾아가 설치해주기 때문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어느 곳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심의 맞춤형교육

올해 상반기에는 2개 과정(컴퓨터 왕초보, 스마트폰 교육)에 79명의 어르신과 농업인들이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업내용은 컴퓨터 작동과 자판 입력, 스마트폰 문자 작성과 사진 촬영 등의 기초부터, 인터넷 검색,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 즐겨워하는 스마트교육

000 할아버지(83세, 서산시 해미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도 보통 시내까지 나가야 하니 번거롭고, 농사 일도 바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마을회관까지 직접 찾아 와서 가르쳐주니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이젠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는다. 요즘은 손주들 사진이 나 동영상 보는게 삶의 낙이다.”고 말했습니다.

02

강원도 정선군

1:1 맞춤형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한 어르신

1:1 맞춤형 교육으로 스마트한 어르신

정선군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추진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이용 능력을 올리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가족과 이웃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생님과 어르신 학생의 스마트 공감

‘맞춤형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스마트폰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로 참여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SNS 활용법 등을 지역 어르신에게 1:1 맞춤형 눈높이로 알려드리는 교육입니다. 현재 고한읍 1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정선군 관내 9개 읍·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워서 즐겁고 가르쳐서 기쁜 스마트 교육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주민 000 씨는 “평소 손주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동네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 자랑을 하는지 약이 올랐는데,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이제는 나도 손주랑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 스마트폰 강사로 참여한 학생 000 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알려드리면 되겠지 했지만, 막상 어르신께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가르치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부족한 설명에도 이해하시고 활용하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03

전라남도 순천시

IoT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사물인터넷이 장애인 주차장을 바꿨어요



장애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주차장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가 연 50만 건에 이르고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

앱을 다운받게 되면 목적지 주변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길 안내와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을 알 수 있고, 비장애인 차량의 경우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번호를 판독하여 안내방송을 하게 되며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주차정보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며, 불법주차 관련 다툼 감소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배려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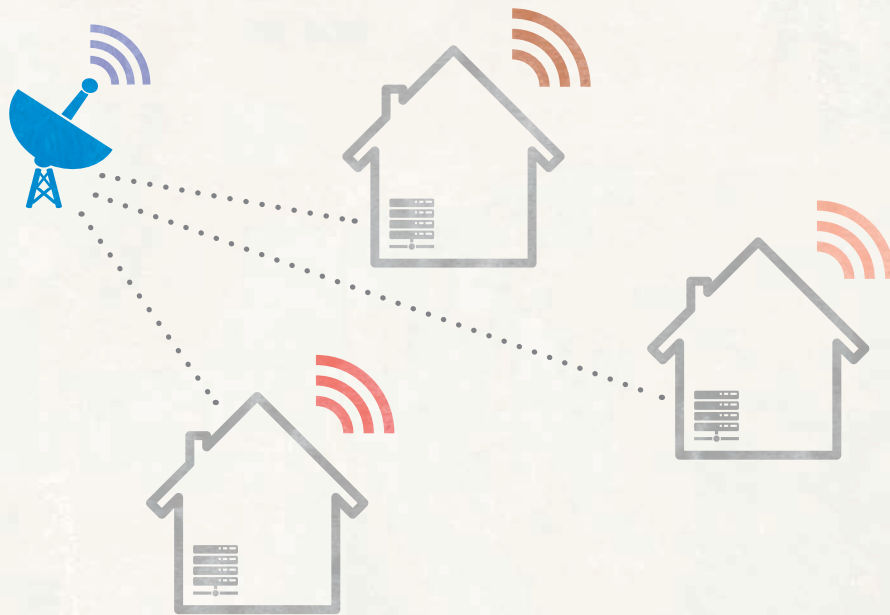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000 씨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책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란 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04

충청북도 제천시

TVWS 기술을 활용한 지역 정보격차 해소

선 없는 인터넷 기술로 정보격차의 선을 넘어요



인터넷 사용, 포기하지 마세요

통신사업자는 유선케이블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케이블을 구축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 시설투자를 꺼리고, 비교적 투자 금액이 적게 드는 지역에서도 그 비용을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므로, 인터넷 사용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무선기술로 인터넷이 더 편해졌어요

제천시는 귀농·귀촌 가구 및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유선케이블이 구축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TVWS 통신기술과 5G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 걱정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제한했던 주민, 인터넷으로 농산물 판매를 계획한 농민, 축사 내 환경을 원격 모니터링 하고 싶은 농장주,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감시하고 싶은 주민 등은 제천시가 무선 인터넷을 공급해 줌으로써 비로소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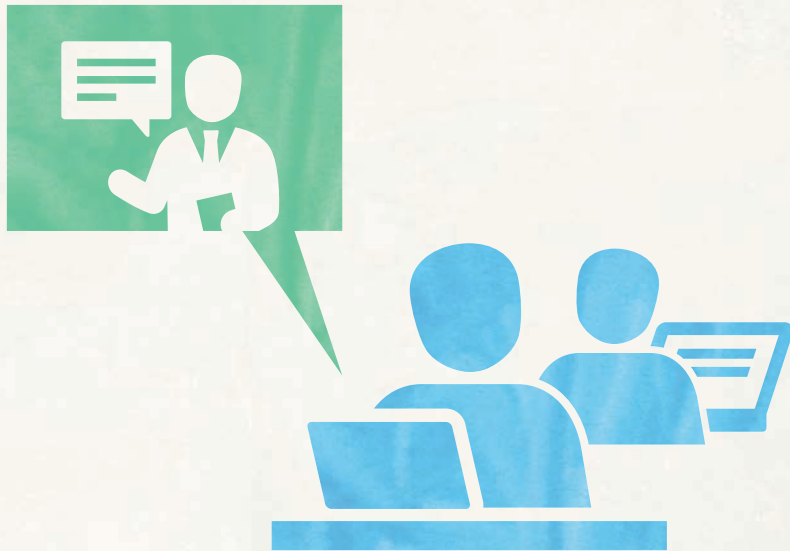
인터넷 사각지대 주민에게 추천해요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무선 인터넷 공급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아직 서비스 받지 못한 가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는 유사 민원을 제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5

경상남도 통영시

온라인 방과 후 학교 '라이브 쌤'

라이브 쌤,
生 生한 교육을
부탁해

라이브 쌤, 교육격차 해소를 부탁해

통영시는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춤 교육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과 후 학교 '라이브 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쌤, 살아있는 교육을 부탁해

'라이브 쌤'은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의 우수 강사진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1 등 총 7개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라이브 쌤, 재미있는 수업을 부탁해

'라이브 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74.4%가 학교 수업 및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94.8%가 수업이 재미있고, 79.5%가 라이브 쌤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률생활 이야기

방방곡곡 [쉽고 친근한 법]을 채워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하지만
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생활 속 법률상담이 필요한 일반 주민부터
다문화가정, 고령 어르신까지
요즘 공공 법률생활서비스가
국민의 쉽고 친근한 법 생활을 위해 뛰고 있네요.
생활 속 법 문제를 도와주는 배려와 포용의 법률서비스.

“방방곡곡 쉬운 법을 만나요
생활 속 친근한 법을 만나요”



01

충청북도 음성군

요일별 맞춤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요일별로 골라받는 상담서비스



목요일마다 법률상담 받아요

음성군은 대한법무사협회 음성군지부와 요일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부동산문제, 금전거래문제 등 다양한 생활법률 정보를 전문상담을 통해 군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음성군과 맺은 협약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음성군지부 소속 13개 법무사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군청 민원과 내에 마련된 전용 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원하는 상담서비스 받아요

현재 군청 민원실에서는 지적측량(매일), 국민연금(화요일), 건축무료상담(수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요일 법률 무료 상담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요일별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요일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음성군청 민원과를 찾는 주민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무료로 상담 받아요

법률상담을 받은 000 씨는 "이렇게 좋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민원실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2

광주광역시 서구
우리 동네 변호사 운영

동네 주민 위한 동네 변호사



우리 동네에 무료 변호사가 있어요

광주 서구는 주민생활 법률문제 해결을 돕고자 무료법률상담 ‘우리 동네 변호사’를 운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6명의 변호사로 꾸려진 ‘우리 동네 변호사’는 주민들의 민사, 가사, 민생침해 등 생활법률문제에 대해 서구청 등 지정된 장소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오세요

서구 쌍촌동 주민 김OO 씨는 건물 임차인 최OO 씨의 권유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OO 씨 대신 카페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왔고, 최OO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으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김OO 씨는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의 문을 두드렸고 우리 동네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므로 그 신청을 활용해 보라.”고 김OO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법은 몰라도 우리 동네 변호사만 알면 돼요

상담을 받은 김OO 씨는 “법을 잘 몰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싶었지만 비용문제로 망설였는데, 무료로 상담도 해주시고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문화가족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법률문제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의 모든 법률문제 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의사소통과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통역사가 함께 지원해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통역사·사례관리사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소송 전 과정을 함께 처리하며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자문변호사(자원봉사)와 함께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구조 조치를 취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도움을 드립니다

센터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족에게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

‘촘촘하게 따뜻하게’
공공서비스, 생활을 안아준다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발 행 인 | 행정안전부 장관

발 행 일 | 2018년 11월

기 획 | 김일재(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조소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희열(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류진수(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주무관)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4067
